

“현지 맞춤형 복지사업 펼친다”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 22일 개관...무료급식소 등 운영

몽골에 한국불교의 자비와 불교사회복지정신을 널리 퍼나갈 요람이 건립됐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외곽 바안주르호구 24동에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센터'가 그곳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 건물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소개하는 자리를 현지에서 마련한다. 5월 22일 오전 11시 '조계종사회복지센터' 개관식이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등, 몽골 현지 복지사업 전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KOICA의 지원으로 재단에서 파견한 봉사자가 현지 상황을 점검, 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바안주르호구 구청에 요청, 건축허가를 획득했다. 건물은 약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올 초부터는 한국에서 파견된 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왔다.

2층 건물로 조성된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는 한 층당 약 99.2㎡ 규모로, 1층은 마을공동우물과 자원봉사자 숙소 및 사무실로, 2층은 도서관·공부방·마을회관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가 마을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마을공공도서관·방과후 공부방 등을 상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갖기 계획을 갖고 몽골 현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가 해 나갈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마을공동우물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안주르호구 24동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주민들이 형성한 빈민촌이며 현재도 계속 팽창되고 있다. 몽골 정부 예산지원으로는 겨우 전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에 설립된 조계종사회복지센터.

가 설치됐을 뿐, 수도도 설치되지 않았다. 마을우물 역시 관정공사부터 시작했지만 이만만치 않아 몽골 정부에서 미뤄오고 있었던 차다. 정부가 엄두도 못냈던 사업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해냈다. 약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공동우물을 완공한 것이다.

김동훈 팀장이 “수도가 없어 식수가 절실한 상황이라 관정공사부터 시작했지만 지역 특성상 땅을 200m 정도나 파내려가서야 우물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우물은 만만치 않은 공정을 거쳐 개발됐다. 마을공동우물은 개관식이 있는 5월 22일부터 완전히 개방, 제공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현지인들을 모아 자원봉사대를 조직,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직 복지국

가 인력이 정립되지 않은 몽골에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개념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단은 빈민촌을 위한 지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사회인정망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 현지인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즉, 몽골인들의 물질적 결핍을 무조건 해외 원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몽골인들 스스로 서로 돕는 과정을 거치며 '상호부조'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몽골인들에 대한 자립 프로그램 시행이다. 현재도 바안주르호구 24동 주민 및 청소년, 몽골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위한 한글교실과 컴퓨터교실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한층 더 발전

시킬 생각이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몽골 청소년들을 위한 한글교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몽골어로 된 한국어 교재' 마련이다.

현지 봉사자들은 “KOICA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을 꾸려놓았지만 쓸 만한 교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몽골은 아직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자국 내에서 책을 만들기 어렵고 책값 역시 물가에 비해 매우 비싼 나라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 내에 인쇄 장비를 마련하거나 봉사자들의 정성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지인들의 기대 속에서 속제를 안고 개관하는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에 대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종단 및 사회에서도 통하는 국제사업모델로 기능함으로써 지역밀착형 국제사회복지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봉사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몽골 복지사업에 관심 있다면?

'108인회'에 가입하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몽골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08인회'란, 몽골 조계종 사회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1구좌 1만원 이상 후원하는 후원단체의 이름이다. 재단은 한달 108만원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공부방, 도서관 운영, 보건서비스 제공, 무료급식 등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02)723-5101



5월 15일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개관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노인·장애인 위한 정성 모아요”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천태종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해두은)은 5월 15일 복지관 및 단양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개관 1주년 기념 큰잔치'를 열었다. 재가장애인과 지역노인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참여, 즉석 노래자랑, 지역인사 기증품 경매, 바자회,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행복한 단양 건설'을 기치로 지난해 개관,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 중인 노인·장애인복지관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나눔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정성으로 섬기는 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 '질적으로 차별화된

복지관'을 실천목표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직업재활, 치료, 교육, 사회재활, 주간보호, 재가복지, 특별기획, 상담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여가 선용·휴식 공간을 제공, 종합적인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노인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공로가 있고 장애인은 사회구조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기에 국민 모두가 보살피고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천태종은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시행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가 6월 10일과 11일 오전 10시~오후 3시 서울 사간동 법원사 교육관에서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희망지킴이 'RESTART(재출발)'을 시행한다. 이는 자원봉사자 및 호스피스 봉사자, 자원봉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희망자들이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자원봉사를

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이론과 실천 등을 아우른다. 강사진으로는 동국대 교수 보각 스님,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 고려대법원법당 지도법사 지현 스님 등이 초청됐으며 '불교의 생사관', '미래사회의 자원봉사', '환자와의 의사소통', '자원봉사자의 소명 의식' 등에 대해 교육한다. 수강료는 2만원이며, 선착순 50명 모집. (02)734-8050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듣고·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송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계
 - 초발심사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계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업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범 1부

•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아이센스·염송경집 1부·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면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촬영, 내장형카메라, MP3, 멀티태스킹·백그라운드음악, 내장2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라디오 내장, 터치패드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일·한자 전자사전
※영·일·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 전국 소호점 문의 : 011-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